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의 매개적 역할*

Exploring Pathways from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and Stress Levels*

이소현(So-Hyun Lee)¹⁾

도현심(Hyun-Sim Doh)²⁾

최미경(Mi-Kyung Choi)³⁾

구슬기(Seul-Ki Ku)⁴⁾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pathways from mothers' beliefs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and stress levels. A sample of 230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25 boys and 105 girls) in Seoul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hildren's stress and subjective well-being. Their mothers responded to questionnaires on mothers' beliefs and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mothers' beliefs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both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and stress levels. Neither children's private after-school activities nor children's stress mediated between mothers' beliefs and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Mothers' beliefs also had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ignificantly, both mothers' beliefs and children's stress played crucial roles in improving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¹⁾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³⁾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Hyun-Sim Doh,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E-mail : simdoh@ewha.ac.kr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 : 양육신념(Parental Beliefs), 사교육 경험(Private After-School Education), 아동의 스트레스(Children's Stress),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 서 론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우리는 성취 지향적이고, 경쟁 주의가 만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행복한 삶은 상실되기 쉬운데, 실제로 12-14세 아동의 9.8%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아동은 8.6%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우리나라 아동이 경험하는 삶의 주관적 만족도는 35.9%로 보고되어(통계청, 2006), 아동의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해도 사회는 더욱 피폐해지고 아동은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여러 영역에 걸친 자신의 경험, 성취, 관계의 질 그리고 자신의 기능에 대해 되돌아보고 가치를 부여하고 종합한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내리는 평가 혹은 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Diener, Suh, Lucas, & Smith, 1999; Keyes, Shmotkin, & Ryff, 2002),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이와 관련된 환경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및 신념,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경험, 외부의 지지체계 등을, 아동의 개인 특성 변인으로는 성별, 우울, 불안, 낙관성, 자존감, 스트레스 등을 보고한다(고재홍 · 김미정, 2009; 도인중, 2006; 이정미, 2006; 최윤정, 2007; Garnezy,

1993; Masten & Coatsworth, 1998; Pollard, Hawkins, & Arther, 1999; Rutter, 1987; Werner, 1989; Werner & Smith, 1983). 가정, 학교, 또래, 이웃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 가운데 특히 부모관련 요인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간의 애착 등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변인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 후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의 인지적 요소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Bell, 1979; Parke, 1978)이 등장함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양육신념은 부모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심리적 가이드로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객관적이고 인지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개념 틀이다(안지영 · 박성연, 2002; 전경숙, 1995). 예를 들어,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고 성숙주의 양육신념을 가질 때, 유아의 생활 만족도는 높고 우울정도는 낮게 나타났으며(남덕임, 2004), 유아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졌다(전은영, 2004). 어머니의 지적 성취 강조 신념과 유사한 개념인 학업기대, 학업성취 및 공부압력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 선행 연구들(김중범, 1995; 류연자, 1995)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적 기대는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지닌 양육신념과 아동이 지닌 주관적 안녕감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 불안 정도는 낮아지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등 아동은 스스로 높은 안녕감 수준을 지각하리라 가정된다. 그러나 아동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증진이 중요함에도 이와 관련된 변인들의 경로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또 다른 환경변인으로 초등학생의 88.8%가 참여하고 있는(통계청, 2008) 사교육을 살펴볼 수 있다. 사교육 경험을 아동발달과 관련시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사교육 자체 보다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아동의 발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선행학습으로 인해 사교육의 경험은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부여하고, 보다 쉽게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이옥, 1997; 통계청, 2008; 허철, 1997).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부적절한 사교육이 아동의 우울, 불안, 자율성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우남희 · 백혜정 · 김현신, 2005; 이은주 · 이기연, 1995; 임자성, 2002; 정의옥, 2004). 실제로 전교조 충북지부가 청주시내 4-6학년 어린이 522명을 대상으로 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행복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성적 스트레스’와 ‘학원 때문에 놀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주를 차지하였다(노컷뉴스, 2008. 5. 7). 몇몇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아동의 안녕감은 사교육의 경험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사교육을 받는 시간과 학습을 위한 숙제시간이 많아질수록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정영임, 2008), 주말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감 수준은 낮아졌다(조성연 · 신혜

영 · 최미숙 · 최혜영, 2009). 이와 유사하게, 과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결과(임자성, 2002)는 사교육이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연구들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부정적 정서 및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나, 사교육과 아동의 긍정적 요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이 아동의 긍정적 요인, 즉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의 개인관련 변인 중 하나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스트레스란 생활하는 가운데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긴장이나 압박감 등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으로서 주로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주요한 생활사건보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을 예측하는 데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Holahan, Holahan, & Belk, 1984; Zarski, 1984)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영역과 관련한 일상적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하였다(김진영, 2006; 이지원, 2002; 정성인, 1998; 한미현 · 유안진, 1995).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은 부모나 학업관련 영역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는데(고재홍 · 김미정, 2009; 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부모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느끼고,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 등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지고(Lazarus & Folkman, 1984) 우울감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였다(김정희, 1987;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이와 더불어 주요 생활 사건과 일상의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년 후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는 학령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이후의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내포한다. 이와 같이,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부정적 심리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된 반면, 아동의 스트레스가 긍정적 심리상태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의 선행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 등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양육신념과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부모가 지닌 교육관에 따라 아동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며, 이러한 신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은 여러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국외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리하게 기대하거나 지나치게 요구할 때 유아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Grune & Brooks, 1985; Rutter, 1995).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어머니의 기대감, 성취에 관한 압력은 유아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며(김재은, 1998; 홍은자, 2001),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갖거나, 지나친 기대와 자극으로 조속하도록 강요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이정은, 1992; 정혜인, 2003).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잉기대를 할 경우 아동은 스트레스를 더 높게 지각하였고(권혁록, 1996; 천민필, 1993; 황혜정, 2007), 어머니의 성취압력이 높으면 아동은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류연자, 1995). 즉,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자녀를 합리적으로 지도하는 경향이 떨어지고 지시, 통제 그리고 성취를 강요하게 되어(오정현·정태연, 2006), 자녀는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어머니의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과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가 유아 및 아동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령기 아동에게 어머니의 영향력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대부분 그 대상이 유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의 양육신념과 더불어 사교육 경험도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실제로 유아는 과외를 하지 않는 경우 학원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았으며, 학원 및 가정 학습지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하였을 때 학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강순희, 2004).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에서도, 아동은 학업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류수영, 1994; 정성인, 1998; 한미현·유안진, 1995) 학원, 학습지 등 사교육을 많이 수강할수록, 그리고 수강하는 과목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정, 2005; 홍은자, 2001).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정동화, 2002)에서는, 학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과외학습 기간이 길고, 일주일에 과외학습을 하는 날과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은 과외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였다(강인성, 2004; 이은순, 2003; 이지은, 2007; 임자성·채규만, 2005; 하정례, 2008).

이와 같이, 지나친 사교육 활동으로 많은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학령기 아동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아동이 사교육을 받는 것은 또한 부모의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학습지향적인 어머니의 신념은 자녀의 사교육의 시간, 가지수, 비용 및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몇몇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조기, 특기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유아가 받고 있는 조기, 특기교육의 과목수가 많아졌고(김보림·엄정애, 2007;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 2002), 성취압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자녀에게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시키는 경우가 더 많았다(홍은자, 2001). 또한, 어머니의 교육적 기대가 높은 초등학교 5, 6학년 집단은 학업과외 학습에서 평균 3과목의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의 기대 수준이 낮은 집단의 아동들은 학업과외 학습을 받지 않거나, 평균 1과목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권재기,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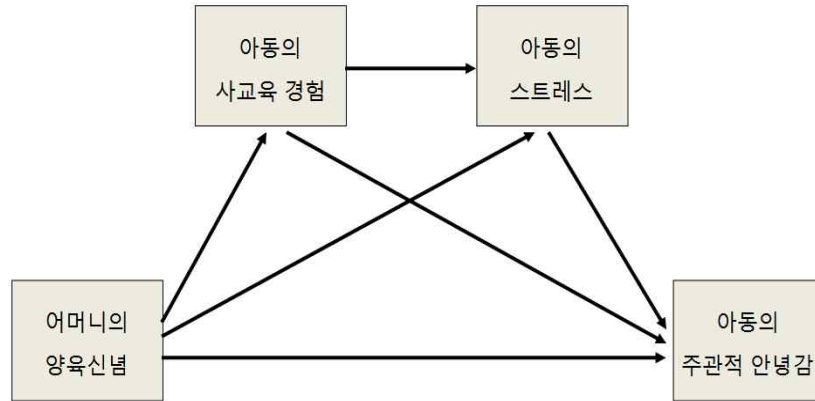
요약해 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는 각각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양육신념 또한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두 가지 변인에 대하여 일차적 관계만을 살펴본 데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연구변인들간의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종합해 보고, 몇몇 직접적, 간접적 경로의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직접적 경로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을 것이다. 간접적 경로로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하여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은 사교육을 덜 경험할 것이며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나아가 아동은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두 가지 간접적 경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 각각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인성 강조 양육신념을 가질 때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낮거나 혹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이고, 이로 인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 1-1.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1-2.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1-3.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 1-4.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그림 1> 연구모형 :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K구에 위치한 S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230명의 아동들(남아 : 125명, 여아 : 105명)로서 아동과 그 어머니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은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으며 구체적 개념 뿐만 아니라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Piaget, 1932), 효능감, 지지감, 향상감 등에 관한 자기평가가 가능하다(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Morris & Nemcek,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느낌을 지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은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대략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은 남아와 여아가 각각

125명(54.3%)과 105명(45.7%)이었으며,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각각 45.2%와 33%로 가장 많았다. 가족구조는 핵가족이 87.4%를 차지하였으며,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24.3%, 300-400만원 미만은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이 37.8%, 어머니는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50.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4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어머니에 의해,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은 아동 자신에 의해 보고되었다.

1)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박병기와 송정화(2007)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6개 하위요인(정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 부적 효능안녕, 부적 정서안녕, 부적 관계안녕) 중 긍정적 요인의 정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을 측정하는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보다 적응적 행동 예언에 효율적이라는 점(Watson & Clark, 1984)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긍정적 안녕감과 부정적 안녕감의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전자에 초점을 두어 세 가지 하위 요인을 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일단 일을 맡으면 제대로 해낸다’, ‘생활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 한다’ 등이 포함된다.

원 척도의 형식은 ‘확실히 아니다’, ‘상당히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의 6단계 Likert식이었으나, 복잡성을 줄임으로써 보다 명료한 응답을 얻기 위해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척도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안지영(2000)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이원영(1983)의 ‘자녀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Sige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등에서 선택한 문항들, 그리고 선행연구들(Luster & Rhoades, 1989; Okagaki & Strenberg, 1993; Sameroff & Feil, 1985)을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것이다. 본 척도는 인성 강조/지적성취 강조 신념(12문항)과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9문항)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관련되는 연구변인인 사교육이 그 개념적 특성상 아동의 여러 발달적 측면 가운데 특히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다는 점(우남희 외, 2005)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성 강조/지적성취 강조 신념 요인만을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양육신념 척도의 한 쪽은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리고 다른 한 쪽은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성을 강조하는 측면은 ‘성격이 좋은 것이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와 같이 공부 이외의 성격이나 친구 관계, 소질 등을 중시하며, 최선을 다하는 태도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측면은 ‘아이가 일단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성격 좋은 것보다 중요하다’와 같이 학습 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학교의 성적, 사회적인 성공이나 결과적인 성취들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제시된다. 본 척도는 7점 척도로서, 4점을 기준으로 1-3점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5-7점은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값인 4점은 인성과 지적성취 중 어느 한 쪽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보통 정도로 중요시 하는 경우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평균이 2.27(1.00-5.50)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인성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살펴보았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덜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79였다.

3) 아동의 사교육 경험 척도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 실태관련 연구들(김보림, 2007; 김수민, 2005; 박수진, 2001; 박지연, 2004)을 근거로 아동이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 종류와 각 종류별 사교육 시간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아동이 받고 있는 주당 사교육의 시간 및 가지 수를 산출하고자 하였으나, 양자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산출되어($r = .69, p < .001$) 회귀분석시 다중공산성의 문제가 우려되었다. 또한 양 변수는 단위가 서로 달라 합산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는 주당 사교육 시간과 가지 수 가운데 주당 사교육 시간만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아동의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는 한미현과 유안진(1995)의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Felner와 동료들(1988)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인 Daily Hassles Questionnaire(DHQ)와 Shrout(1985)의 Hassles Dimensions, Lempers와 동료들(1989)의 Economic Hardship Question, 국내 선행연구들(류수영, 1994; 윤혜정, 1993; 천민필, 1993; 최창호, 1999; 한미현, 1993)을 기초로 한국 아동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것이다. 본 척도는 부모, 가정환경, 친구, 학업, 교사 및 학교, 주변 환경 관련 요인 등 총 6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8문항)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7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와 학업 관련된 요인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다는 점(김수빈, 2008;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에 근거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본 연구의 참여자인 어머니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어머니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어머니가 공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짜증이 난다’, ‘나는 어머니가 내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셔서 부담스럽다’ 등으로 어머니

의 행동이나 요구 등으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부담이나 갈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나는 학업성적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나는 다니고 있는 학원이나 과외활동이 많아 힘들다’ 등으로 공부나 시험, 과외활동 등의 학업 수행 및 성취와 관련된 긴장이나 걱정, 부담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분석에서 두 요인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r = .39, p < .001$)를 보여 하나의 요인으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식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08년 4월에 서울시 K구에 위치한 S 초등학교 6학년 교사들의 도움으로 실시되었다. 교사들에게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각 교사들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부·실시한 다음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총 29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66부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 90.8%) 이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36부를 제외하고, 총 230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1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

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단순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본 분석에 앞서,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표 1>),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는 부적으로(각각 $r = -.26, p < .001$; $r = -.17, p < .05$; $r = -.28, p < .001$)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각각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r = .16, p < .05$ 와 $r = .29, p < .001$),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r = .17, p < .01$).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첫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7, p < .01$), 그 설명력은 3%이었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덜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은 사교육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첫 번째 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16, p < .05$), 그 설명력은 3%이었다. 다음 모델에서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했을 때,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27, p < .01$), 그 설명력은 10%로 증가하였다. 이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eta = .11, p > .05$).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사교육 경험만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아동은 사교육을 많이

<표 1>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관계와 평균 및 표준편차

(N = 230)

변인	1	2	3	4
1. 어머니의 양육신념	-			
2. 아동의 사교육 경험	.17**	-		
3. 아동의 스트레스	.16*	.29***	-	
4.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26***	-.17*	-.28***	-
<i>M(SD)</i>	2.27(.87)	9.33(5.43)	2.16(.53)	2.85(.53)

주) 양육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β) (N = 230)

변인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3
양육신념	.17**	.16*	.11	-.26***	-.24***	-.21**
사교육 경험			.27**		-.13*	-.07
스트레스						-.22**
<i>F(df)</i>	6.98**(1, 228)	6.03*(1, 228)	12.40***(2, 228)	16.64***(1, 228)	10.41***(2, 227)	11.14***(3, 226)
<i>R</i> ²	.03	.03	.10	.07	.08	.13

주) 양육신념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을 덜 강조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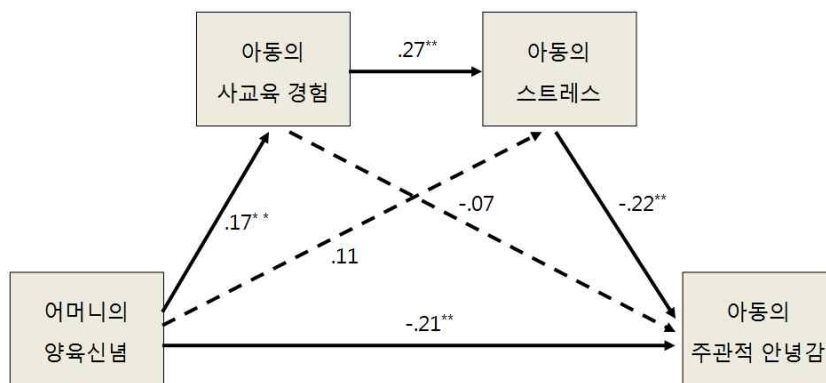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받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첫 번째 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7%이었다($\beta = -.26, p < .001$). 그 다음 모델에서 사교육 경험을 독립변인으로 추가했을 때, 어머니의 양육신념($\beta = -.24, p < .001$)과 사교육 경험($\beta = -.13, p < .05$)은 모두 아동의 주관적 안

녕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설명력은 8%이었다.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추가한 마지막 모델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beta = -.21, p < .01$)과 아동의 스트레스($\beta = -.22, p < .01$)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각각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더 이상 유의적이 아니었다($\beta = -.07, p > .05$). 이 때,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13%로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덜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지며 아동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림 2>에서와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임.

p* < .05. ** *p* <.01.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양육신념,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3>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의 직·간접 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21	-.01	-.22
아동의 사교육 경험 →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	-.06	-.06
아동의 스트레스 →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22	-	-.22
어머니의 양육신념 → 아동의 스트레스	-	.05	.05
아동의 사교육 경험 → 아동의 스트레스	.27	-	.27
어머니의 양육신념 → 아동의 사교육 경험	.17	-	.17

같이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이나 스트레스 각각을 통해서도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포함한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연구변인들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동일한 정도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며,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그 다음 순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및 스트레스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 경로를 비롯하여, 어

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경로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각각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통한 두 가지 경로 등 세 가지 간접 경로에 대해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인성을 강조할수록 자녀의 생활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남덕임, 2004; 전은영, 2004)이나 부모가 과도한 학업적 기대를 가질수록 자녀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김종범, 1995; 류연자, 1995; 장은경·박은혜·김희진, 1998)과 유사하다. 즉, 어머니가 학교성적, 사회적인 성공이나 결과적인 성취들을 중시하게 되면 아동은 우울하거나 위축되기 쉽고 낮은 자존중감을 보일 수 있다.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의 인지적 요소가 자녀의 발달 및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Bell, 1979; Parke, 1978)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중요한 가정환경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아동은 사교육을 덜 받았고, 이러한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낮추었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으로 하여금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갖게 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된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녀가 받게 되는 사교육의 과목수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들(권재기, 2001; 이기숙 외, 2002)과 어머니가 학습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질수록 학습 및 지능에 관련된 조기·특기 교육을 시키는 가지 수와 비용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김보림·엄정애, 2007)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부모는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기준에 따라 자녀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쳐, 자녀양육시 인성을 강조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덜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삶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어 주당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동은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과도한 학업이 아동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국외 연구결과들(Burts, Hart, Charlesworth, & Kirk, 1990; Burts, Hart, Charlesworth, Fleege, Mosley, & Thomasson, 1992; Elkind, 1984; O'Brien, 1988)이나 아동이 학원이나 학습지 등 사교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많은 국내 연구결과들(강순희, 2004; 장혜정, 2005; 홍은자, 2001; 임자성·채규만, 2005; 하정례, 2008)

과 일치한다. 즉, 아동은 일주일 동안 사교육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공부, 시험 그리고 과외활동 등의 학업수행 및 성취와 관련하여 긴장이나 걱정, 부담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아동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관련 스트레스(고재홍·김미정, 2009; 김수주, 2002; 안진아, 2006; 정성인, 1998)가 아동의 정서적 적응, 심리적 안녕감 및 신체적 건강 상태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강인성, 2004; 박안나·김춘경, 2003; 신종순, 1996; 정성인, 1998; 정춘자, 2004; 최성윤, 1992; Compas & Wagner, 1991; Dubow & Tisak, 1989; Larson & Asmussen, 1991; Lazarus & Folkman, 1984; Youngs, 1995)과 일치한다. 이는 또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들(김정희, 1987; 남윤주·이숙, 2008; 신은영·김경연, 1996; 신재은, 1998; 이영자, 1995; 임자성, 2002; Daniels & Moos, 1990; Rowilson & Felner, 1988)과도 유사하다. 특히 학령기 후기인 6학년은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인 만큼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스트레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박안나·김춘경, 2003)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매우 설득력 있는 결과로 보인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은 아동의 사교육 경험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양자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이옥, 1997; 통계청, 2008; 허철, 1997), 혹은 부정적으로(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 2008; 정영임, 2008)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는 양자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살펴본 기존 연구들(이기범, 2008; 조성연 외, 2009)과 달리 선행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신념을 동시에 고려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신념이 사교육 경험과 비교하여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보였던 점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볼 때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아동의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취압력으로 인해 자녀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권혁록, 1996; 류연자, 1995; 천민필, 1993; 황혜정, 2007)과 관련시켜 볼 때, 본 연구결과 역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스트레스라는 두 변인간의 단순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발견되어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간의 영향력에서의 차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후자의 상대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으로 인해 전자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환경적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아동의 개인적 변인인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커다란 영향력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아동의 사교육 경험과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양육시 어머니가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갖는 것이 아동의 발달에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는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으로, 현 우리 사회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 아동전문가는 물론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스트레스는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므로 아동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의 안녕감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은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응답은 인성과 지적 성취를 양 극단의 개념으로 하여 부모로 하여금 어느 한 측면에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본 척도의 특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도 높은 척도의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확고히 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설계를 통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어머니의 양육신념, 그에 따른 사

교육 경험 및 아동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과 같이 아동의 부정적인 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사후 치료적 관점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현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사교육과 관련하여 실태 조사연구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선행 및 결과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교육 경험은 부모의 양육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스트레스를 통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인성을 강조하는 양육신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탐색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순희(2004). 과외학습관련 어머니 변인별 유아스트레스 및 정서적 특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강인성(2004).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고재홍·김미정(2009).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 : 방어기제들의 역할. **초등교육연구**, 22(4), 161-183.

권재기(200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과외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권혁록(1996). 아동기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보림(2007). 유아 조기·특기 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보림·엄정애(2007). 유아 조기 특기 교육의 실태와 어머니 양육신념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8), 13-24.

김수민(2005).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행태와 사교육 결정요인 및 그 효과성 인식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수빈(2008). 아동이 지각한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적응.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수주(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재은(1998). 어린이 발달과 스트레스. 제 6회 학술대회 유능한 어린이로 키우기. 서울 : 삼성복지재단.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종범(1995). 부모의 성취압력과 시험불안 및 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진영(2006).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남덕임(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생활만족도 및 우울정도와의 관계.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남윤주·이숙(2008). 기초연구 :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놀이치료연구**, 12(2), 1-17.

노컷뉴스(2008. 5. 7). “아이야, 너 행복하니?” 절반 이상 행복감 못 느껴. CBS 노컷뉴스.

도인중(2006). 초등학생의 낙관적 설명양식이 주관적

-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수영(1994). 국민학교 고학년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연자(1995). 어머니의 학업 성취압력과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병기 · 송정화(2007). 주관적 안녕의 2×3 다차원 요인구조. **교육심리연구**, 21(3), 591-611.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안나 · 김춘경(2003). 스트레스 대처 훈련이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감소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3), 257-281.
- 박지연(2004).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정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05). 국민건강 · 영양조사-총괄편. 보건복지부.
- 신은영 · 김경연(1996). 아동,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4(6), 195-206.
- 신재은(1998).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종순(1996). 아동 스트레스와 성격, 학교변인과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43, 59-84.
-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 박성연(2002).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실태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 양육 스트레스 및 성취압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1(11), 95-111.
- 안진아(2006).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기대 및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정현 · 정태연(2006).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3(2), 43-54.
- 우남희 · 백혜정 · 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치원 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 유아교육학회**, 25(1), 5-24.
- 이 옥(1997). 조기교육 경험요인과 아동의 창의성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고등교육연구소 학술저널**, 5, 99-112.
- 이기범(2008).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의 행복감.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아동이 행복한 사회**, 51-65.
-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홍용희(2002). 가정에서의 유아 조기, 특기교육 현황 및 부모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2(3), 153-171.
-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순(2003). 초등학생의 과외학습과 스트레스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 · 이기연(1995). 아동의 과외수업과 문제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국민학교 저학년아동을 대상으로 -. **한국아동복지학회지**, 3, 205-239.
- 이정미(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1992). 유치원과 국민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일상적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원(2002).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대처양식과 건강문제와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6(1), 39-51.
- 이지은(2007). 과외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학업 스트

- 레스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자성(2002).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자성·채규만(2005).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한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95-311.
- 장은경·박은혜·김희진(1998). 논문: 만 3세아 발달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기대. **대한가정학회지**, 36(4), 137-146.
- 장혜정(2005). 사교육이 아동의 학습동기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숙(1995).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은영(2004).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 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동화(2002).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교육문제연구**, 17, 135-153.
- 정성인(1998).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영임(2008). 초등학생의 과외학습시간, 교우관계, 불안수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의욱(2004). 초등학생의 과외, 과외 스트레스, 학교 적응간의 관계.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춘자(2004).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혜인(2003).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8). 한국의 아동은 행복인가 - 전국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 한국 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9-81.
- 조성연·신혜영·최미숙·최혜영(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천민필(199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성윤(1992).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윤정(2007). 변화신념, 압력신념, 학업성취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서울: 통계청.
- 통계청(2008). 사교육비조사. 서울: 통계청.
- 하정례(2008). 과외학습과 학습습관이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 한미현·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허철(1997). 초등학교의 과외교육 실태와 학습효과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은자(2001). 어머니 성취압력과 학원·학습지 이용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2007). 방과후 발레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ll, R. Q. (1979). *Parent, Child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 Burts, D. C., Hart, C. H., Charlesworth, R., & Kirk, L. (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mental practi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 407-423.
- Burts, D. C., Hart, C. H., Charlesworth, R., Fleege, P. O., Mosley, J., & Thomasson, R. H. (1992). Observed activities and stress behaviors of children i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kindergarten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297-318.
- Compas, B. E., & Wagner, B. M. (1991). Psychosocial stress during adolescence :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M. E. Colten & S. Gote (Eds.), *Adolescent Stress* (pp.67-85). N. Y. : Aldine.
- Daniels, D., & Moos, R. H. (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3), 268-289.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 Three decades on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o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Elkind, D. (1984). *The Hurried Child*. New York : Management & Music publish, Inc.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Grune, A. L., & Brooks, J.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stressful life event.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society of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 Canada.
- Holahan, C. K., Holahan, C. J., & Belk, S. S. (1984). Adjustment in aging : The role of life stress, hassles, and self-efficacy. *Health Psychology*, 3, 315-328.
-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07-1022.
- Larson, R., & Asmussen, L. (1991). Anger, worry, and hurt in early adolescent : An enlarging world of negative emotion. In M. E. Colten & S. Gote (Eds.), *Adolescent stress* (pp.21-42). N. Y. : Aldine.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0.
- Morris, W. N., & Nemcek, D., Jr. (1982).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arison motivation among preschoolers : Evidence of a stepwise pro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8, 413-425.
- O'Brien, S. J. (1988). Childhood stress : A creeping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Winter*, 105-106.
- Parke, R. D. (1978). Parent-infant interaction : Progress, paradigms, and problems. In G. P. Sackett (Ed.), *Observing behavior (Vol.7) : Theory and appl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pp.69-94). Baltimore : University Park Press.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er, M. W. (1999). Risk and protection :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23(3), 145-158.
- Rowlison, R. T., & Felner, R. D. (1988). Major life events, hassles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 confounding in th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life stress and adjustment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55(3), 432-444.
- Ruble, D. N., Boggiano, A. K., Feldman, N. S., & Loebel, J. H. (1980). Developmental analyses of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self-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05-115.
- Rutter, M. (1987).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181-214).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95) Psychosocial adversity :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Southern Afric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7*, 75-88.
- Sigel, I. 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pp.345-371).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75-490.
- Werner, E. E. (1989). High-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32 yea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81.
- Werner, E. E., & Smith, R. S. (1983). *Vulnerable but Invincible : A Study of Resilient Children*. NY : McGraw-Hill.
- Youngs, B. (1995). **청소년 스트레스 이렇게 해결하라**. 이일남(역). 서울 : 정성출판사.
- Zarski, J. J. (1984). Hassles and health : A replication. *Health Psychology, 3*, 243-251.

2010년 3월 3일 투고, 2010년 5월 3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